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전북도는 김 가공기업 등을 집적해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진은 김 산업 가공·유통 거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1단계 추진 상황 현장.

<사진=전북자치도>

“새 교육” 외치던 천호성, 뚜껑 여니 캠프·전임 인사 ‘김승환 시즌2’

대변인실 5·6·7급 측근 인사 논란
캠프·전임 교육감 라인 대거 기용
음주운전 동문 4급 내정설까지
청렴·공정 인사원칙 ‘도마 위’

(6)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립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2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두고 천호성 교육감의 선거캠프 출신과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문 모 씨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본청 4급(서기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역시 측근 내정설로 교육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대변인실 임기제 공무원

(5·6·7급)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이 합격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선발된 인사 대다수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이거나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대변인실에 몸담았던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보 분야 5급(교육행정)에는 선거캠프 출신이자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대변인실을 거쳐 최근까지 대변인실 행정 대제언력으로 일해 온 이 모 씨가 합격했다. 공보 7급에는 선거캠프 공보팀장과 교육감직인수위원을 지낸 백 모 씨가 선발됐으며, 홍보 6급에는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문 모 씨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본청 4급(서기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역시 측근 내정설로 교육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본청 주요 보직인 4급 교육협력과장

공모에는 과거 초등학교 인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수위원에서 자진 사퇴했던 전 교육감의 고교 동문 송 모 전 시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급 대변인 직위에는 선거캠프와 인수위 대변인을 지내고 선거 당시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천사랑방’에 참여했던 정 모 씨가 지원해 사실상 내정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승환 체제와의 차별화’를 내세웠던 선언과 달리 실무 라인인 전임 시절 인력과 캠프 공신들로 채워졌고, ‘천사랑방’ 연루 교사의 분청 파견과 음주운전 동문 4급 내정설까지 겹치면서 전 교육감이 공언한 청렴과 공정의 가치가 취임 두 달 만에 빛이 바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술한 도덕성 논란과 ‘김승환 시즌2’라는 비판을 짊어지고 교육청에 입

성한 인사들이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는 길은 행정 역량과 결과로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민 기자

국회 운영위,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가결

운영위 찬성 17표로 의결
국민의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한병도 “제명 노력 다하겠다”



이진숙 의원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과 표결이 비밀투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제명결의안에 반발하면서 전체회의와 표결에 불참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표결 후 “총투표 수 17표 중 찬성 17표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를 넘어 확실히 제명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각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이진숙 의원 제명을 의결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이상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국회 재적의원 1/3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론통일 및 국민화합차원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이 이같은 반발표를 우려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키로 할 경우 제명은 무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 대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참석해 5·18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했다. ‘소요’는 여러 사람이 폭행, 협박, 파괴 행위를 통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폄훼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전남광주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재적) 3분의 2로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out)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군산 고교 ‘103건 악성 민원’ 학부모 행심 기각

2년간 민원 103건·교원 6명 피해
교권침해 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
전교조, 무고성 신고 제재 촉구

2년간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교원을 위협한 군산 A고등학교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

판위원회는 군산 A고 학부모가 제기한 교권침해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해당 학부모가 2년간 103건의 민원을 넣고 교장실을 찾아 위협 행위를 해 교원 6명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2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학부모가 저지른 행위에 비추어

불 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후 인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교원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반복적·악의적 민원을 조기에 차단할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K-김’ 산업 3천억 시대 연다

생산부터 가공·수출 전주기 구축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거점 육성
규제 개선·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전북도가 전국 2위 수준의 물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종자·양식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이어지는 김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그동안 물김 생산에 집중돼 있던 지역 김 산업의 구조를 고부가가치 가공·수출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를 거점으로 관련 기업과 산업기반을 집적해 오는 2030년 도내 김 산업 규모 3,000억원 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2025년 기준 물김 생산량이 5만602톤에 달하지만 마른김과 조미김

등 가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생산된 물김 상당량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되는 등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안정적인 원료 생산기반 확충과 가공·유통산업 집적, 기업 성장지원 및 제도 개선을 연계해 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면에서 계속>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삼천 하늘채 라비엘 확정 3세대 예비 15세대 모집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중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대상 주택 우선 공급제도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

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주택은 ‘삼천 하늘채 라비엘’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4번지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확정 3세대(예비 15세대)이다.

▷확정 추천 :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행사)에게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예비 추천 :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행사)에게 ‘예비자’

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이다.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또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알림 마당을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도시재생 거점시설 ‘청춘미가’ 활성화

원도심 방치 한옥 청년 외식창업 ‘전진기지’ 탈바꿈

군산 원도심 오래된 한옥이 도시재생을 거쳐 청년들의 외식 창업을 돕는 실천 공간으로 거듭났다.

군산시 중앙로에 위치한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는 외식업 메뉴 개발부터 고객 응대, 매장 운영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다.

군산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이후 근대역사 경관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신규 창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5년 이상 방치됐던 80년 넘은 한옥을 매입·리모델링해 2018년 ‘청춘미가’로 개소했다.

군산시는 만 19~39세 청년 외식창업 희망자에게 사업장과 주방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임주자는 식재료비와 일부 공과금만 부담하며 직접 상호와 메뉴를 정해 영업을 전개한다.

초기 투자비와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성을 검증하고 시행착오를 미리 줄일 수 있는 구조다.

2018년 개소 이후 영화타운 TEAM, 패밀리 킷마루 카페, 메리그레이크, 카페일구팔오, 브루딩, 유자매, 우드앤디, 하루한잔 등 다수의 청년 예비창업자가 청춘미가를 거쳐 갔다.

이 중 패밀리 킷마루 카페, 메리그레이크, 카페일구팔오, 우드앤디, 하루한잔 등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입증했다.

현재는 중식·양식 경력을 갖춘 부부 창업팀 ‘돌푸바오버거’가 대만식 찐빵



‘바오’에 중식 불맛을 접목한 이색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색 있는 메뉴와 한옥 특유의 공간 매력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중이다.

청춘미가는 창업 성공 사례 배출 외에도 청년들이 부담 없이 도전하고 적성을 확인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사진=전북개발공사>

‘안전지대’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이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세계 금융 리더들과 자산운용 전략 등 논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내달 3일 전북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에서 세계 정상급 금융 리더들이 참가하는 ‘2026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C)’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전주시, KB금융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지니(GENIE)포럼의 핵심 세션으로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

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불확실성 속에서의 자산운용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크리스 호그빈(Chris Hogbin) 라자드 자산운용 대표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카밀 블랙번(Camille Blackburn) 영국 금융감독청(FCA) 아태 총괄 국장이 특별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아질 패넬토론에서는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앤디 버든(Andy Budden) 캐피탈 그룹 아태 투자총괄, 앤드류 샤프-폴(Andrew Sharp-Paul)

웰링턴 매니지먼트 아태 솔루션 총괄,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 부문 대표,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JIFC를 포함해 내달 3일 오전 10시 반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제7회 지니포럼은 지니톡톡, 핀테크 스타트업 비즈 미팅 등 다양한 금융·경제 세션이 준비돼 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지니포럼 공식 홈페이지(genieforum.net)를 통해 사전등록 선

청하면 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지니포럼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처음으로 기금운용 본부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행사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전북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녹색배’ 일상 소비 확대

설원·슈퍼골드·그린시스 차별화된 품종 보급 농가 경쟁력 및 수요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던 큰 배 중심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녹색배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설원’, ‘슈퍼골드’, ‘그린시스’ 등 차별화된 품종 등을 앞세워 국산 배 일상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배 시장은 명절용 ‘신고’ 품종 중심으로 형성돼 농가 재배·출하 전략도 추석과 설 명절 수요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신고’ 재배 면적은 전체 배 재배 면적 85.4%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에는 과일 소비가 명절 선물용 중심에서 벗어나, 평소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와 다양한 맛, 용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설원’은 9월 상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평균 무게는 600g, 당도는 14브릭스 이상으로 단맛이 뛰어나고 과육이 아삭하며 갈변 속도가 느려 조각용 과일로 활용성이 높다.

열매 크기와 품질이 균일해 선별·포장이 쉽고 대량 유통에도 유리하다.

‘슈퍼골드’는 9월 상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평균 무게는 570g, 당도는 13.6브릭스 수준이며, 은은한 산미가 있어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중도매인 대상 시장성 평가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할 만큼 맛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린시스’는 9월 중순에 수확하는 중생종으로, 평균 무게는 460g, 당도는 12.3브릭스 수준이다.

‘그린(Green)’과 ‘오아시스(Oasis)’를 합친 이름처럼 녹색 껍질과 풍부한 과즙,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검은별무늬병에 강해 안정적인 생산에 유리하며, 상온에서 약 30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



현재 이들 품종의 재배 면적은 ‘설원’ 10헥타르(ha), ‘슈퍼골드’ 27헥타르(ha), ‘그린시스’ 43헥타르(ha)이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전문 유통조직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설원’은 울산, 나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수현

<사진=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은 “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절 중심 소비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평소에도 맛있는 국산 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은 녹색배 품종 특성에 맞는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수요에도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인공지능 전환> 전북농기원, 데이터 기반 농식품 AX 전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활용 전략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원 학술회의실에서 ‘AX 시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활용 전략’ 세미나를 열고, 농식품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농업기술원 내 관련 연구·지도 인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향후 AI를 활용한 현장 적용 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청 강연은 데이터 전문기업 (주) 데이터누리의 우형제 부사장이 맡았다. 우 부사장은 “글로벌 트렌드로 본 AX 시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수집·통합 및 처리 방안 △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운영 전략 등을 소개하며,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강연 이후 이어진 종합토의 시간에서는 발효식품과 원료 농산물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의 현장 활용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방향과 플랫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IoT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농업기술원은 현재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발효식품 제조환경공정 및 품질특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품질관리와 현장 적용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데이터의 표준화와 전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플랫폼과 연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송은주 과장은 “농식품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농식품 분야의 AX 전환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의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 교육’

실질적 자산관리 정보 제공

전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 교육을 지난 25일 실시했다.

교육은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은퇴설계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 재무설계 통한 경제안정과 은퇴 후 삶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은퇴 이후 자산관리 설계 방법에 큰 관심을 보이며 노후 준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못한 참석자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큰 호응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팀 팀장이 강사로 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절세 및 금융상품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자산관리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대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노총 전북 제28대 권기봉 의장 취임

현장 중심 노동자 권익 향상

제28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에 권기봉 의장이 연임됐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에 따르면 25일 제28대 의장 취임식 및 제66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2부에는 제28대 의장 취임식 및 기념행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대의원 및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지난 사업 추진 현황과 결산 등을 보고하며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심의·의결하며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2부 행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참석자들도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제28대 의장 취임을 축하하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제28대 의장 취임식 및 제66년차 정기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가 새로운 임기를 힘차게 출발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사노조 “사학 반발하면 채용 원칙 바꾸나”

1차 선발 3~5배수 변경 경위 공개·동시 지원 촉구... ‘동료 감시’ 점검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기준을 사립재단 반발 이후 완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채용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25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 시 1차 필기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하도록 안내했다가 일부 사립재단의 반발 이후 3~5배수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요구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차 필기 합격 배수는 면접과 수업실연 등 2차 정성평가

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일부 사립학교에서 1차 필기 합격선을 넘긴 응시자가 있음에도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고 재공고한 사례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도입’과 수업실연·면접 등 ‘2차 전형의 교육청 위탁 확대’를 요구한다”며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 응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게 한 뒤 언행 등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동료 교사를 관찰·보고하게 하는 부적절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직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관행을 즉각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가람·최명희 청년문학상’ 공모

31일까지 접수
총상금 1,100만 원

전북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문학상인 ‘2026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2026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작품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전북대신문방송사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와 단편소설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 부문은 시조를 포함해 3편 이상, 소설 부문은 단편소설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전북대신문사 편집국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총상금은 1,100만 원 규모다.

최종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발행되는 ‘전북대신문’ 개고기념 특집호에 발표된다. 전북대는 한국 문학계의 거목인 가람 이병기 시인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사진=전북대학교>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1955년 시작된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모집이 모태로, 최명희 작가 역시 1971년 소설 ‘정옥이’로 당선된 바 있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북대신문방송사 누리집이나 전북대신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개최

셀프 사진관부터 단편영화제 시상식까지 즐길 거리 ‘풍성’

군산시는 오는 29일 초원사진관 일원에서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배경으로, 영화가 지닌 따뜻하고 소박한 감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영화 촬영지라는 공간의 특색을 살려 늦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는 △추억 3컷 셀프 사진관 △레트로 게임존 △프리마켓 △단편영화제 시상식 등 사진과 놀이, 영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무대공연도 함께 마련해 축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5회를 맞이한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영화제’ 시상식이 열린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영화제’는 군산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해 제작된 공모작 가운데 선정된 수상

작을 소개하고 시상한다.

더불어 작품 속에 담긴 군산의 다양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다.

익숙한 촬영지가 창작자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새롭게 표현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번 영화제의 또 다른 재미다.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지는 군산시간여행축제도 현장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참여 이벤트와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시간여행축제를 소개하고, 가을에 이어질 군산의 대표 축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가 영화로 잘 알려진 초원사진관 일대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고,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누구나 함께 찾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영화 속 장면으로 사랑받아 온 초원사진관 골목에서 영화의 추억과 함께 색다른 축제의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8월의 마지막 주말, 초원사진관 골목에서 영화의 추억과 함께 색다른 축제의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현대 유스 김예건, 유럽 무대 도전

황인범·설영우 거친 명문 구단
세르비아 즈베즈다 이적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 FC의 유스 출신 미드필더 김예건이 세르비아 명문 FK 츠르베나 즈베즈다로 이적한다.

전북현대대는 선수의 유럽 무대 진출 의지를 존중해 세르비아 즈베즈다 이적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예건이 동지를 트는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국가대표 황인범과 설영우가 거쳐 간 세르비아 수퍼리가 명문 구단이다.

동대부축급산중과 전주영생고를 거친 김예건은 연령별 국가대표를 두루 거친 유망주다.

지난 3월 준프로 계약으로 성인 무대에 발을 들인 뒤, 지난달 9일 전북 구단 역사상 최초로 고교 재학 신분에서 정식 프로 선수로 전환했다.

김예건은 올 시즌 K리그1 8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특히 울산 HD



<사진=전북현대>

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으며, 코리아컵 1경기에도 출전해 1군 무대 적응력을 입증했다.

전북현대대는 치열한 리그 순위 경쟁 속에서도 더 높은 무대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선수의 도전 의지를 반영해 이번 이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도현 단장은 “시즌을 치르는 구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선수의 유럽 도전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구단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김제시벽천미술관, 나상목 화백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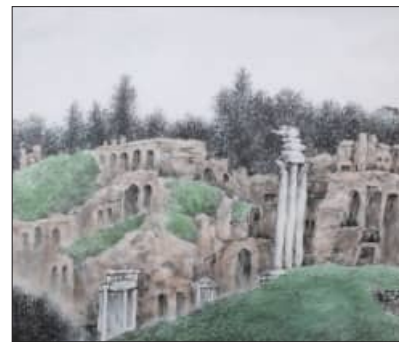
1979년 ‘문화교류’ 세계 순방
해외명소 재조명

김제시벽천미술관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벽천 나상목 화백의 특별 기획전 ‘시간을 건너온 스케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해외여행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던 1979년, ‘문화교류’의 사명을 띠고 세계를 순방했던 나상목 화백의 해외명소 스케치를 2026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조명해 본다.

당시 한국의 웅장한 산수를 서양에 알린 화백이 귀국 전 짧은 시간 동안 보스톤의 오랜 항구,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 서구의 낯선 풍경을 자신의 화폭에 담아낸 뜻깊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풍경화 감상을 넘어, 반세기 전 미지의 세계를 마주했던 화가의 설렘과 경이로움을 함께



<사진=김제시>

견고 공감하는 문화적 서사를 경험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가장 한국적인 붓으로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그려낸 벽천 화백의 1979년 발자취를 따라 걷는 특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건너온 스케치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을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은 25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부안군>

부안군, 하서다목적체육센터 준공

주민 생활체육 거점 기대

부안군은 25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하서다목적체육센터는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65.41㎡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에는 실내체육관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을 비롯해, 소방·냉난방·방송설비 등이 갖춰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하서다목적체육센터는 부안읍·졸포·행안·백산·보안에 이어 여섯 번째로 문을 연 다목적체육센터다.

권익현 군수는 “하서다목적체육센터가 주민들의 일상적인 체육활동과 소통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서다목적체육센터는 주민 생활체육과 동호회 활동, 주민 화합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가족의 날’ 행사

정읍시는 지난 22일 정읍기적의도서관에서 12~36개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북스타트 가족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가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책을 매개로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책 읽어주기를 시작으로 몸을 움직이며 리듬을 익히는 음악놀이에 참여했다. 다양한 모양의 풍선을 직접 만들어보는 마술 풍선 체험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 관계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책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을 응원하고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며 “오는 11월 7일 열리는 두 번째 북스타트 가족의 날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습관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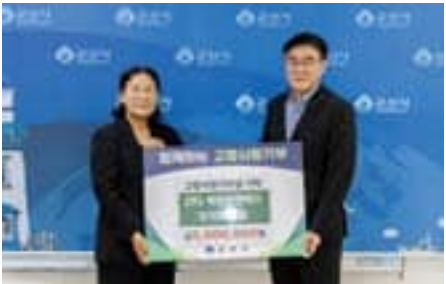
익산시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움직이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28일부터 금마면·왕궁면·팔봉동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란도란 건강키움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장기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재료와 친숙해지고 균형 잡힌 식사관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영양교육은 어린이들이 직접 건강간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재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음식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편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유아체육 전문 교구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신체 균형과 활동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란도란 건강키움교실’은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주)세원이엔에스,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군산시는 (주)세원이엔에스 정지민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지민 대표는 3년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이번 기부까지 1,6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세원이엔에스는 군산시 소재의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으로,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해 군산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지민 대표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금이 군산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3년간 변함없이 고향사랑기부를 이어오시고,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써주신 정지민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추경 2조 53억 원 편성

본예산 대비 1,372억 ↑ 고유가 지원·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회복 집중

익산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규모 2조 원이 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익산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예산(1조 8,681억 원) 대비 1,372억 원(7.3%) 늘어난 2조 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298억 원(7.7%) 증가한 1조 8,134억 원, 특별회계는 74억 원(4.0%) 증가한 1,919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시는 국제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유가로 가중된 시민 생활고를 덜고 ‘익산 대전환’을 이끌 미래 기반을 다지고자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했다.

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387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65억 원 △ 시내·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 26억 원을 배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특별보충 대출 이차보전 3억 원 △서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억 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26억 원 △노인 생활시설 지원 25억 원 △중저소득 11억 원 △익산형 근로정년수당 9억 원 △영유아 보육료(0~2세) 6억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6억 원을 반영했다.

익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꼼꼼히 쟀다.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 기본부상 및 타당성 용역 5억 원 △인공지능(AI) 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 분담금 6억 원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9억 원 등을 배정해 신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는다.

농식품 분야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18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채소류 출하조정시설 지원 10억 원 △조식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억 원 △농촌 인력지원 5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억 원을 책정했다.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화물차 구매지원 24억 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 매입 19억 원 △외두소하천 정비 13억 원 △산북천 개선복구 12억 원 △국가산단 완충지류 시설 6억 원 을 편성했다.

문화·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12억 원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11억 원 △명품관광지 조성 5억 원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4억 원 △문화도시 조성 3억 원 등을 담았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도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새로운 해양레저 명소로 ‘우뚝’

오션팔레트 방문객 1만 7천 명 돌파

군산의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시설인 오션팔레트가 개장 이후 총 1만 7,843명의 방문객을 맞으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션팔레트는 단순히 물놀이만 즐기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과 가족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름철 군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오션팔레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해양레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오션풀에는 파도풀과 인피니티풀, 어린이풀 등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물놀이

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서핑장과 잠수풀에서는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하며, 해양생물 체험장에서는 상어와 가오리 등 다양한 해양생물 관찰과 먹이주기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용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은 100개 규모의 카바나다. 카바나는 독립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돼 가족이나 일행이 함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션팔레트는 시설 내부의 콘텐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지역 관광사업자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운영하며 지역 상생에도 나서고 있다. 수탁자인 ㈜조이는 오션팔레트를 찾은 관광객들이 무너도 갯벌체험, 스쿠버다이빙, 서핑, 썰라인 등 주변 관광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사가 대비 40% 할인된 결합 상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스쿠버다이빙과 갯벌체험 결합 상품(9만 6천 원) △스쿠버다이빙 체험강습과 썰라인을 결합한 상품(10

만 2천 원) △서핑 체험강습과 갯벌체험을 결합한 상품(5만 1천 원) △서핑 체험강습과 썰라인을 결합한 상품(5만 7천 원)이 제공돼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오션팔레트는 단순한 물놀이 시설을 넘어, ‘보고, 체험하고, 먹고, 쉬어가는’ 고군산군도의 체류형 관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시는 향후 오션팔레트와 지역 내 다양한 축제·행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방문객들이 고군산군도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소비하는 지역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는 물론 가을과 겨울까지 담아낸 사계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에게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는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사계절 관광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자립 준비 더 든든하게”

복지 현장 의견 청취

익산시가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과 머리를 맞댔다.

익산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5개 기관 시설장과 함께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

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호아동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자립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동들이 체감하는 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익산시가 밀알복지재단과 협업체 추진할 예정인 ‘열여덟 어른 떠나자·립!’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사업은 아동이 직접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

석자들은 아동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어려움과 보완사항을 함께 살폈다.

시는 현재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참여 교육과 체험형 일상생활 지원 등 아동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공동체 14개 제품 ‘한자리에’

‘시민창안대회’ 성과 나눠

정읍지역 공동체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농특산물 가공품 14개가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공동체 장터에서 선보였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정읍시공동체협회가 주관한 ‘2026 공동체 프리마켓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22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2년 시작된 ‘정읍시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찾아내고 지원한 지역 공동체들이 그동안 쌓은 활동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지역 공동체들이 정

성껏 만든 수공예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등 우수 제품 14개가 전시됐다. 시민들은 제품을 둘러보며 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성과를 확인했다.

시민과 공동체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놀이와 다양한 여가 활동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데 어울려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마당이 공동체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90여 개국 여행 이야기, 익산에서 만나다

내달 12일 독서의 달 특강

익산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여행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내달 12일 오후 2시 모인 여행숲도서관에서 박성호 여행작가 초청강연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여행과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접하고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성호 작가는 EBS ‘세계테마기행’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으며 교보문고 여행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저서로는 ‘여행가의 동물수첩’, ‘은둔형 여행인간’, ‘바나나 그

다음’ 등이 있다.

강연에서 박 작가는 세계 90여 개국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여행과 독서가 삶에 주는 의미를 비롯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용기와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 신청은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모인여행숲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경, 온열질환자 안전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구조 대응 만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4일 군산 고군산군도 보농도·말도 해상인도교 일대에서 트레킹을 하던 50대 여성 2명이 잇따라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긴급 출동해 안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9분께 군산시 옥도면 보농도 인근에서 낚섬과 함께 트레킹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 불편과 함께 거동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새만금파출소 경찰관과 구조 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오후 1시 39분께 말도·보농도 제1인도교 인근에서 A씨와 보호자

를 발견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8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도교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트레킹을 하던 또 다른 50대 여성 B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환자 응급 조치를 실시한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인근 속소로 안전하게 복귀했다. 군산해경은 이처럼 고군산군도 섬일길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온열질환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응급조치와 구조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섬 지역 안전관리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임신부 구강건강관리’ 연중 운영

익산시가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출생 자녀의 구강건강까지 챙기는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임신 중기인 17~24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과 구강검진, 구강관리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신 기간에는 임덧으로 치솔질이 어려워지거나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예민해져 출혈과 염증 등 구강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임신 중 올바른 구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하면 치과공중보건의의 구강검진과 상담을

비롯해 무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뿐만 아니라 출생 자녀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사업에 등록된 임신부가 출산한 자녀에게는 3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연 2회 무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신 17~24주 임신부는 익산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예약하면 된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임신부가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출산 후에는 자녀의 건강까지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관광 경쟁력 높인다 2(題)

서남권 공동 관광브랜드 개발 고창군과 정읍시, 부안군이 전북 서남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알리기 위한 공동 관광브랜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창군은 정읍시·부안군과 함께 3개 시군의 역사·문화, 생태적 가치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전북 서남권 관광브랜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가 서로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동 관광브랜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3개 시군이 함께 개발된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갯벌 청년캠프’ 운영 고창군이 내달 27일과 오는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일원에서 ‘당일치유 고창갯벌 청년캠프’를 운영하며 27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년캠프는 ‘2026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청년 기획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1회차 ‘공동기획(Co-creation)’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1회차 캠프에는 환경·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획자와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해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가치와 생태적 특성을 배우고, 현장 탐방과 기획 활동을 통해 고창갯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캠프는 이러한 기획 과정에 이어 청년들이 세계유산 고창갯벌을 직접 경험하며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당일치유 고창갯벌’을 주제로 자연과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며,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회차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고창=백종규 기자
---	--

김제시민, 새만금신항 공정심의 촉구

청와대 상정집회 식발·탄원서 전달

김제 시민들이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행동을 나섰다.

김제시의회 및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등 김제시민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청와대 앞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심의 촉구 청와대 상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의과정의 공정성, 판단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추가심의와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장, 김진수 운영위원장,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 김용문 이통장협의회장, 이만준 김제수협 어촌계협의회장 등 6명이 식발에 참여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김제시의회 의장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식발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이 의장은 “시민들이 결정 과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 역시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지역감등은 해소되기 커녕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자유 발언을 통해 △미해결 쟁점에 대한 추가 심의 △심의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 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김제시는 시민들과 함께 끝



<사진=김제시>

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탄원서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의문을 최종 결정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해소에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오늘의 식발은 어느 지역을 이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김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시의회는 시민들의 의문이 해소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동네점빵, 찾아가는 통합돌봄 ‘주목’

자활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전달 확대

‘고창동네점빵’이 농촌마을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이동형 판매서비스를 넘어 자활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전달을 연계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고창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고창동네점빵’은 마트 이용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이동형 마트다.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과 지역업체 상품도 함께 판매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지역 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며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고창군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과 연계해 응급구급대 전달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과도 협력

해 퇴원환자를 위한 밀란잔 배송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활참여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생활편의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제3차 병해충 긴급 방제

보호수·노거수 수목 생육 저하 방지

부안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잦은 집중호우로 면역력이 떨어진 지역 내 소중한 녹색 문화자원을 지키기 위해 관내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깊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제3차 병해충 긴급 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방제는 늦더위와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병해충 피해를

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기상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수목이 치명적인 생육 저하나 고사 방지를 위해 관내에 총 95개소 179그루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예찰과 방제망을 가동하고 있다.

중점 방제 대상은 매년 나무의 수세를 약화시키는 주범인 진디물과 응애류 등 돌발 병해충이다.

군은 전문 방제 인력을 투입해 수목 구석구석 약제를 정밀 살포하고, 폭염 속 수목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행정력

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백 년의 세월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해 온 보호수 및 노거수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집중 방제를 통해 보호수와 노거수 수목들의 건강을 철저히 지켜내는 것은 물론, 군민들께서도 주변 나무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군에 알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건강한 가을나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주의 당부

김제시는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르신 폐렴구균 및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감염에 따른 중증 감염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중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위약의료기관(주소지와 관계 없음) 또는 보건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접종 전 본인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도 농업인 등 고위험군을 중

심으로 적극 권고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이 잦은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 3차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 대상 여부와 접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어르신과 농업인 등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기에 접종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변산면, 바람꽃청년회 참여 ‘독거어르신 행복한 생신상’

부안군 변산면은 지역 독거어르신의 특별한 하루를 함께하기 위한 변산면 특화사업 ‘행복한 생신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복한 생신상은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해 온 독거어르신 생신상 지원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말벗이 돼드리며 안부를 살피는 주민참여형 지역돌봄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꽃청년회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바람꽃청년회 회원들은 케이크·떡·과일·미역구 등 정성껏 마련한 생신상을 전달하고 함께 생신을 축하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행복한 생신상은 단순히 음식과 생신상을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청년이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어르신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모르던 이웃이 관계를 맺고 이러한 만남이 지속돼 마을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돌봄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행사는 행정 중심의 복지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청년조직이 지속적인 자원봉사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람꽃청년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한 생신상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신과 안부를 함께 챙기는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학습코칭 멘토링 ‘호응’

31일까지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고창군에서 유명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활용해 고창 후배들의 과외선생님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고창군장학재단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관내 중·고생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대학생 학습코칭 멘토링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창 출신 우수 대학생과 관내 중·고등학생을 1:1로 매칭해 교과 학습, 자기주도 공부법,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의·치·약학계열, 교대 등 전국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고창 출신 대학생 40명이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3개월 후 만족도 조사에선 멘토(대학생) 92%, 멘티(중·고생) 8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칭을 받은 이들의 교과 성적 향상과 학습 습관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대학생 멘토와 중·고등학생 멘티를 공개



<사진=고창군>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멘토는 고창 출신 4년제 대학생(휴학생 포함·30세 이하), 멘티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멘토·멘티는 3개월(9~12월)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주 2시간(월 8시간)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토에게는 실적에 따라 학기당 60만 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 확인 또는 (재)고창군장학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인재 양성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민관합동 청렴캠페인 전개

부안읍, 투명한 행정 실현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병태)와 부안읍이장협의회(회장 김용화)는 25일 민관합동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청렴 캠페인 민관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행정은 투명하게! 주민은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

슬로건으로 선정한 ‘행정은 투명하게! 주민은 행복하게!’ 문구를 이장회보 매페이지에 작성해 지역주민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병태 부안읍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장협의회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천해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읍과 이장협의회는 2021년 민관합동 청렴협치체를 구성해 주민과 행정 간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금광기업·남광토건,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김제시는 2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공사에 참여한 금광기업과 남광토건의 임직원 35명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336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 거점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김광기업과 남광토건 임직원 여러분이 김제시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김제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현장소장과 남광토건 양영욱 현장소장은 “이번 기탁금이 김제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금광기업과 남광토건 임직원 여러분이 김제시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김제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 가족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 ‘자녀 마음 읽기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청소년 가족 30명이 참여해 부모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가족 집단 상담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내소사로 이동해 사찰 예절 및 도량 안내, 108배와 염주 만들기, 명상 등 다양한 가족 체련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였다.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가족 간 따뜻한 대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민선9기 민관 협력체계 가동 2(題)

남원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완주군, 대도약 발전위원회 출범
남원시는 25일 시청 1층 강당에서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35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공약실천계획 점검,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공개모집에 참여 의향을 밝힌 시민 153명 가운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과 전화 면접을 거쳐 35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양충모 남원시장이 평가단에게	완주군이 민선9기 군정의 핵심 동력이 될 민·관·학 정책협력 기구인 ‘완주 대도약 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완주 대도약 100년 미래 구상을 본격화했다. 완주대도약 발전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회와 자문단, 4개 분과위원회, 추진지원TF로 구성한다. 25일 완주군은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1차 출범식을 열어 4개 분과위원회를 우선 가동했으며, 오는 28일 자문단 간담회를 거쳐 위원회 조직 체계를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출범 기념 세리머니, 위원회 운영 계획 및 군정 주요 현안 설명, 전문가 특강,

완주군의회, ‘20만 순례객’ 대비 교통대책 모색

2027 세계청년대회 대책 논의 “초남선 도로확포장공사 시급”	2050) 도로확포장공사가 다뤄졌다. 현재 일부 구간이 농로 형태로 남아 있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행사 전까지 완료하기에는 공사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시주차장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24일 의정실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초남이성지를 찾는 대규모 순례객들의 이동과 안전 등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성중기 의장을 비롯해 이진영,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의원과 완주군 문화역사와 및 도로교통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초남이성지가 교황 방문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행사 기간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의 순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이서 초남선(리도	2050) 도로확포장공사가 다뤄졌다. 현재 일부 구간이 농로 형태로 남아 있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행사 전까지 완료하기에는 공사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만큼,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도로 확포장공사가 행사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에도 논의를 이어갔다. 군의원들은 △일방통행 운영 △행사 기간 승용차 통제 및 교통관리 △대형 버스 통행을 위한 농로 및 교차구간 정비 △인근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한 임	시주차장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군의원들은 행사장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활용해 초남이성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성중기 의장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준비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초남이성지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사 전까지 도로 확포장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일방통행, 셔틀버스, 임시주차장, 농로 정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귀농귀촌인 300명 ‘어울림 한마당’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경험·정보 공유 지역 유대 강화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2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귀농귀촌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민속경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동욱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행사에서는 각 지역 회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정착 과

<사진=순창군>

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이어갔다.

조동욱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규 귀농귀촌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협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흥겨운 공연과 함께 각 지회

가 참여하는 민속경기와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귀농귀촌인 여러분은 순창의 새로운 구성원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생각과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폭염·가뭄 장기화에 원예·과수 예찰 강화

농업용수 공급·시설 특별점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홍보 병행	생육장해와 일소(햇빛데임)·열과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점검, 재해예방 보조사업 추진 등 선제적인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등 대응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대응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남원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관내 원예·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예찰과 피해 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작물	특히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살수차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과 폭염·가뭄에 취약한 원예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차광막·환기팬,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다. 특히 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에만 그치지 않고, 군정 주요 현안과 주민 갈등에 대한 ‘사전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검증을 통해 실행력 있는 군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63회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가져

순창군체육회(회장 손충호)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24일 물동골 연회장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손충호 순창군체육회장을 비롯해 최영일 군수, 오수환 군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체육회 임원, 종목별 회장 및 감독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행사는 출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인사발령,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	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을 함께하며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웠다. 손충호 순창군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순창의 명예와 자력을 널리 떨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63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 총 39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순창군은 33개 종목에 입원 44명, 코치진 83명, 학생부 48명, 일반부 399명 등 총 574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7위를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순창=박지현 기자
--	--

한국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농촌 미래 비전 선포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결집	한국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회장 한숙화)가 25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비전 선포 및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갈 여성 리더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행사는 ‘리더의 지혜로, 행복한 농촌, 미래를 여는 완주군생활개선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회식에서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현자 완주군생활개선회 부회장이 완주군수상, 하영숙 동상면 회장이 완주군의회회장상, 이영자 화산면 회장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상을 받았다.	이서면 부회장을 역임한 이미경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김규성 완주군산업건설위원장, 유익식 새마을지도자완주군협의회장,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행사의 핵심인 ‘2026 비전 선포식’을 진행해 행복한 농촌을 이끌 여걸 미래지향적 가치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출생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

‘프로젝트 169’ 4차 협약 체결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
남원시는 25일 유니세프, JB전북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출생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사업’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부행장, 조재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업후원실장, 정일신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참석해 출생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째 목표인 ‘평화·정의·포용적 제도’의 9번째 세부목표인 ‘모두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고 출생등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아 이름 붙인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남원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0~13세 아동과 그 가정으로,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남원시는 남원아동확인증 발급·운영 및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와 교육·홍보를 담당하며,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진단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기금을 집행하는 등 대상 아동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소양통합돌봄 조합원 선진지 견학

완주군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허영식)은 최근 전조합원과 주민자치위원 및 이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충남 서천군 마산면을 견학했다.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통사협’)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립총회(3월 24일)를 가졌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인가(8월 10일)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들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서천군 마산면은 주민자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견학에서는 강의와 간담회를 통해 마산면 주민자치의 역사와, 현황,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계속	거주하며 서로를 확인하는 에이징인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동부권어르신돌봄센터를,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빈집재생사업으로 카페329를, 마산초 폐교 극복을 위한 스쿨빌리지 사업 등을 운영중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소통사협,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체육회, 생활개선위원회 등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견학을 통해 다양한 주민조직이 협력을 통해 소양도 더 살기 좋은 소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됐다. 이윤순 소양면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지역의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양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식 소통사협 이사장은 “소통사협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조직은 물론 민관협력을 통해 더 좋은 소양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

남원시, UAE SRTIP 손잡고 중동과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남원시가 천연물·바이오소재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5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연구기술 혁신단지(SRTIP),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바이오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지역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3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RTIP는 아부다비, 두바이에 이은 UAE의 세 번째 후쿠쿠 샤르자를 대표적인 연구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2016년 설립 이후 산업계·정부·학계가 연계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과 유관기관의 혁신활동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UAE의 대표 연구기술혁신 클러스터인 SRTIP와 협력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연구혁신 및 바이오소재·기술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 △뷰티·식품 분야 B2B 기회 발굴 △창업가 네트워크 조성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공직기강 특별감찰 복무위반 등 불시 집중 점검

완주군이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지난 7월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이어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복무 자세를 다지기 위한 이번 감찰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통보 없는 불시·암행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근무지 무단이탈, 수당 부정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직무 관련자와의 향응, 골프, 사행성 행위 등 품위손상 △금품·향응 수수 등 △민원방치 및 고의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등이 다. 특히 완주군은 단속과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다. 각 부서장이 직접 교관이 되어 부서별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복무기강을 확립해 군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완주군은 매년 3~4차례에 걸친 공직기강 복무 점검과 함께 출장 여비 자체 점검, 공가·병가 사용 실태, 당직근무일지 작성 실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바이오연구원 중국과 글로벌 교류 확대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중국 동방싱크탱크 대표단과 만나 남원 바이오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교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테크노파크 초청으로 전북을 찾은 중국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 처칭 집행원장, 김영수 선임고문, 김학근 한국분원 대표 등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은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전략, 산업 기획, 투자유치 및 프로젝트 실행 등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기관과 남원 바이오산업 현황, 기업 지원 기반을 소개하고 중국과의 산업 교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B2B 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중국 현지 기업과 연계한 수출 확대 △연구개발·기술교류 △중국 기업의 국내 유치 등이다. 양측은 중국 현지 기업과 남원 바이오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교류 수요를 발굴하고, 수출과 공동 프로젝트,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과 기업 등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여산면지사협 배해숙 위원 어려운 이웃에 성금 전달

익산시 여산면은 배해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용기마을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최근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병원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배해숙 위원이 접하면서 이뤄졌다. 배 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선뜻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배 위원은 2016년부터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에 꾸준히 온정을 전하고 있다. 또 연명마을 부녀회장,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웃애(愛) 돌봄단으로 활동하며 이웃을 살피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배해숙 위원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산면 주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신림면지사협 태양광 벽부등 설치 봉사

고창군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을규, 공공위원장 고한규)가 지난 24일 가평, 노동, 덕화 마을에 태양광 벽부등 35개를 설치했다.

대상지역은 고령주민과 취약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가로등 등 조명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태양광 벽부등은 골목길이 좁고 어두웠던 마을 안길을 밝히고 어르신들의 야간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며, 방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림면 지사협은 앞서 작년 가을에도 벽부등 38개를 설치 완료한 바가 있으며,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박을규 민간위원장은 “작은 불빛이지만 벽부등 설치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정우면 어르신 22명 새 장수사진

돌맞이가족도 촬영 “오래간직할 추억 되길 바래”

정읍시자원봉사센터(대표 임찬규)가 정우면 어르신 22명의 장수사진과 첫돌을 맞은 한 가족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센터는 25일 정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전문 사진작가와 머리 손질·화장을 맡은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촬영 전 어르신들의 머리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다듬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다. 첫돌을 맞은 가족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완성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된다. 정우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미애 면장은 “사진 한 장이 어르신과 가족에게 오래 간직할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재능을 나눠 주신 자원봉사센터와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25일 정우면 어르신 22명의 장수사진과 첫돌을 맞은 한 가족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정읍시>

전북은행, 남원시에 여름키트 60박스 기탁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 지원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지난 25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에서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위해 여름키트 60박스(한가액 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여름키트는 손전등, 여름이불, 보냉백, 팔토시로 구성되었으며,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기탁된 여름키트는 지난 8월 11일 남원시 관내 읍면동 저소득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부를 마쳤다. 이로 인해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박춘원 전북은행 은행장은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다”고 덧붙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여성단체협의회, 축제 수익금 기탁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순창군청에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을 갖고, 2026년 참두름여행축제에서 운영한 ‘두릅장아찌 만들기 체험부스’ 수익금 273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두름여행축제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두릅장아찌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회원들이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참두릅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부안읍지사협, 폭염 취약계층 여름 이불 지원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폭염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맞이 이불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감이불과 패드세트를 전달했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에 직접 여름 이불을 전달하고, 폭염 행동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의 안부와 생활환경도 함께 살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폭염에 따른 건강 이상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살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용지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가구 안전손잡이 설치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복지기동대(대장 이경민)가 관내 취약계층 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직접 찾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낙상사고 등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기동대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화장실과 현관, 복도 등 이동이 잦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간을 확인한 뒤 각 가구의 주거 여건에 맞춰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설치 후에는 손잡이의 고정 상태와 주변 환경을 다시 확인하며 대상자가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경민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집 안에서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신천지 정읍교회 16년째 이어온 지역사회 봉사

신천지 도마지파 정읍교회(신천지 정읍교회)성도들이 지난 16년 총 748회의 봉사활동을 이어왔고, 누적 참여 인원은 4490명, 수혜 주민은 7400명에 이른다.

눈에 띄는 것은 규모보다 지역사회에 필요가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읍교회의 활동은 보훈 현장에서부터 이어졌다. 산내면 무명전몰용사 추도식에서는 쌍화차와 대추차를 나누는 등 보훈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전통시장 봉사는 정읍교회의 대표적인 장기 프로젝트다. 교회 측은 인절미 만들기, 옛치기 행사,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장바구니 나눔 등 상인들과 장터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해 왔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一事一言〉



‘무관용’ 외치던 교육행정, 시험대에 오른 인사 원칙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인사가 만사다’라는 오랜 격언은 단순한 행정적 구호가 아니다. 조직의 방향성과 가치, 그리고 그 조직이 사회로부터 얻는 신뢰의 크기를 결정짓는 엄중한 경고다. 특히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인사는 일반 행정기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윤리적 잣대가 요구된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와 사회적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4급 개방형 직위인 ‘교육협력과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은, 과연 전북교육청에 최소한의 인사 검증 체계와 도덕적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직에서 스스로 사퇴했던 송모 전 전주시의원이 두 달 만에 교육청 본청의 핵심 요직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했으며, 적발 장소 또한 아동들의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초등학교 인근이었다. 교원단체

와 현장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무관용 원칙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현재 도내 현장 교사들은 자력연수를 마쳤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발령이 전면 취소되는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올바른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직무적 특성상 이러한 기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지휘하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청 4급 고위직 인사에 음주운전 전력자를 앉히려 한다면, 이는 현장 교사들에게 가혹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고위직에게는 특혜를 주는 심각한 형평성 위배다. 현장 교원들의 자존감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천호성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러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청렴 기준과 인사 원칙이 정당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방증일 것이다. 인수위 사퇴 두 달 만의 요직 지원은 도민과 교육계의 눈높이를 무시한 ‘위장 사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보은 인사’나 ‘내정설’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을 강조했던 천 교육감 본인의 언행과도 정면으로 충돌하여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행정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임기 초반에 공정성과 청렴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향후 추진될 어떠한 교육 정책도 도민과 교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이번 개방형 직위 임용 건은 단순한 한 명의 공무원 채용 문제가 아니라, 천호성 교육감 체제의 공직 기강과 청렴 의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민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워 부적절한 인사를 배제하는 엄정함을 보여줄 때만이 무너져가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가 될지, 망사가 될지는 결국 원칙을 지키는 결단에 달려 있다.

ㅣ기고ㅣ

더위에 지친 입맛, 전북 제철 먹거리로 깨워보세요!



처서가 지나면서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향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울여름 긴 폭염을 견뎌낸 우리 몸은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 오히려 피로를 느끼기 쉽다. 무더위로 지친 몸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더위로 입맛이 떨어지면 시원한 음료나 당분이 많은 간식을 찾기 쉽다. 그러나 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기보다는 수분과 영양소를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 현대인의 식탁은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초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는 풍성해졌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균형을 놓치기 쉽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자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식은 특별한 식단을 따르기보다 가공과 정제를 최소화한 식재료를 활용해

채소와 과일, 곡류, 콩류, 육류와 수산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제철 식재료는 계절에 맞는 신선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어 무더위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는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멀리서 특별한 식재료를 찾을 필요도 없다.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산물과 전통식품만으로도 건강한 자연식탁을 차릴 수 있다. 전북의 비옥한 들녘에서 자란 오이, 가지, 고추 등 제철 채소를 넉넉히 섭취하고, 순창의 전통 된장과 고추장을 적절히 활용하면 입맛을 돋우면서도 다양한 식재료를 맛볼 수 있다. 된장과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식품으로, 콩을 비롯한 원료의 영양을 섭취하면서 우리 고유의 맛과 식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갈증을 해소할 때는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수박이나 포도 등 제철 과일과 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창·진안 수박, 김제·남원 포도, 장수 오미자 등 전북의 제철 농산물은 여름철 식탁에 신선한 맛을 더해준다. 단백질은 지리산 흑돼지 등 전북의 우수한 축산물을 비

롯해 콩과 두부, 달걀, 생선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전북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바지락과 장어, 김 등 수산물과 해조류도 여름철 식탁에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다. 무주와 진안의 밤과 호두 등 지역의 견과류와 완주·익산 등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복숭아 등 제철 농산물도 간식이나 식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공된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적절히 선택하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건강한 식생활은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골고루 먹고,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과 당류 섭취를 줄이며,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함께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울여름 무더위에 지친 몸을 위해 이제는 식탁도 계절에 맞게 바뀌보자. 농약안전사용기준(PLS)을 준수해 생산된 전북의 신선한 농산물과 지역의 전통식품을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 전북의 들과 산, 바다가 길러낸 제철 먹거리가 긴 여름을 이겨낸 우리 몸에 건강한 활력을 더하고, 다가오는 가을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최윤희

사설

전북 퍼지컬AI 대도약, 미래산업 새 성장판 열자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의 산·학·연·관이 ‘퍼지컬AI 대도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전북의 미래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 14개 시·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결집은 단순한 대학 차원의 사업을 넘어 전북 전체가 퍼지컬AI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퍼지컬AI와 로봇, 수소에너지 등 전북의 전략산업을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퍼지컬AI는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동차, 각종 기계와 결합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이다. 자동차와 상용차, 농생명,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기존 산업과 접목할 분야도 넓다. 전북이 선점한다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대가 인재 양성과 연구·실증의

중심에 서겠다는 점에 기대가 크다.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 연계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한다면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 정부의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정책과 연계한다면 전북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결의대회와 협약, 선언만으로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예산과 연구개발 사업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전북으로 끌어들이는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대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연구하고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미래산업 경쟁에서 수도권과 일부 광역권에 밀려온 아픈 경험에 있다. 퍼지컬AI만큼은 달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대, 정치권, 시·군, 기업이 지금의 결집을 지속적인 실행력으로 이어가야 한다. 퍼지컬AI 대도약이 구호가 아니라 전북 산업지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대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꽃가게 앞을 지나며 / 문병란

그 꽃밭갈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가진
온갖 꽃들이 진열된
꽃가게 앞을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문득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진정 그리움이란
진홍빛 장미꽃만큼이나
간절히 타오르는 정열인 것이냐.
아름다운 것만 보면 문득
푸른 하늘이 치어다 보이고
거기 눈부신 이국중

아네모네의 이름보다 멀게
너의 고운 미소 피었다 스러지나니.
삶의 외로움 나누는
목마른 어느 길목에서
나는 너의 조그만 미소를 구하여
이리도 간절히 발돋움해 애태운다.

오라, 노을지는 꽃길 위에
종종 걸음으로 왔다가 스러지는
무수한 발자국 지우며
봄과 함께 꽃내음 타고 올
제비꽃 초롱 내 사랑하는 연인!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 국문과 졸업하고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민족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문학상, 요산문학상, 금호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9월 영연했으며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엽니다.

전북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구독신청 063-282-9601

홈페이지www.jeonbuktimes.co.kr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론지

[청년농업인 현장 탐방]

포도알처럼 탐스럽게 영글어가는
이명근 대표의 열정

“

쫄쫄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 비닐하우스 안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린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포도 향과 가지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엉겨 붙은 포도 알은 그 고된 땀방울을 단번에 잊게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산면, 넓은 들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영농조합법인 '하늘마다'.

이곳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과수 농업을 이어오고 있는 만 28세 청년 농부 이명근 대표(2025년 김제시 4-H 연합회 회장)의 일터이자, 지역 농업의 첨단화와 상생을 일구어내는 현장이다.

2019년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이 대표는 부모님, 형제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며 현재 포도 4,500㎡(약 1,360평), 시설복숭아 3,600㎡(약 1,090평), 그리고 콩 105,000㎡(약 3만 1,800평)에 이르는 대규모 농지를 경영하고 있다.

〈편집자 주〉

..... ”

3대째 이어온 흙의 가치,
스마트 기술과 상생으로 꽃피우는 김제시 농업 이כל다

가업 도우미에서 18종 포도의 매력에 빠진 나의 꿈으로
처음부터 농업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어릴 적 고된 과수원 일과 축산(소 키우기) 수발을 들며 한때 농업에 대한 반감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곁에서 아껴내며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스며든 농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훗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었다.

3대째 내려오는 포도 재배 노하우와 수많은 시행착오의 기록을 바탕으로, 성인이 된 그는 다양한 포도 품종이 가진 각양각색의 맛과 향, 보석처럼 빛나는 매력을 알게 되면서 가업에 깊은 흥미와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대의 축적된 경험과 아버지대의 기술력, 그리고 자신의 현대적 영농 감각을 결합한 이 대표는 현재 소비자의 눈높이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샤인머스켓을 넘어 약 12~18종에 달하는 다양한 포도 품종을 시험 재배하며 3대째 이어온 포도 장인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스마트 기술 도입과 민·관 협력을 통한 영농 혁신

이 대표가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영농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든든한 맞춤형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의 '신기술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총사업비 5,000만 원)을 통해 과수원용 스프레이어(SS기)와 드론 방제 장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과거 사람이 직접 수행하느라 4~5시간씩 걸리고 농약 중독 위험이 컸던 과수원 방제 작업은 SS기 도입 후 단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3만 5천 평의 콩밭 역시 드론을 활용해 노동력 절감과 안전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여기에 수기 영농일지 데이터를 결합해 정밀 영농 매뉴얼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김제시의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 '하늘마다'의 가치를 높였으며, 공판장 및 유통시장에서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전금미 과장은 "청년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며,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 농업인의 창업 지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농산

업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품질 균일화와 '담'이 있는 100% 직거래 전략

판매와 유통 부문에서는 단기적 이익보다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둔다.

출하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덜 익은 과일을 속성 포장해 파는 행위를 철저히 지양하며, 지역 농가들과 협력해 균일한 고품질 과일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 반응 역시 뜨겁다. 대면 판매나 직접 배달 시 다양한 신제품 시식 기회를 제공하고 넉넉한 담(서비스)을 얹어주는 특유의 스킨십 경영으로, 단골 고객 중심의 직거래 재구매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수도권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시설하우스 조생종 복숭아 역시 조기 출하의 강점을 살려 고단가를 인정받고 있다.

4-H 네트워크와 상생의 비전

초기 정착 과정에서 문화여건 부족이나 기술 숙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설 투자 부담 및 자연재해 위험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깊이 체감했다.

이 대표는 이를 극복하는 힘을 청년 농업인 간의 '연대'에서 찾았다. 김제시 4-H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청년 농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농업을 너무 어렵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센터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이뤄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명근 대표의 꿈은 노후를 은폐하지 않고 공유하는 '함께 성장하는 농장'을 지향하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신규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김제를 대표하는 과수 농가이자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농업인으로 걸어가는 그의 행보가 지역 농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숨이 턱 막히는 비닐하우스 안, 이마를 따라 흘러내리는 이명근 대표의 땀방울은 정직한 흙의 가치와 농업의 미래를 입증하고 있었다. 폭염 속에서도 결실을 맺어가는 탐스러운 포도알처럼, 스마트 영농과 상생의 가치로 농촌의 판도를 바꿔 나가는 그의 열정이 김제 농업의 밝은 내일을 한층 기대하게 만든다.

/이상훈 기자



<사진=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홍보팀>